

# 놀이치료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모의 공감능력 및 자녀의 정서행동문제의 변화과정 분석

## Analysis of Transformation Process of the Parents and Children who participated in the Filial Therapy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부교수 장미경  
강사 손금옥\*  
전임강사 김성은

Dept. of Child and Family Welfare, Namseou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Mikyung Jang  
Part-time instructor : Kum Ok Son  
Full-time instructor : Seong Eun Kim

### Abstract

The study aims at verifying the parents' and children's changing process while using parents' play therapy in parent education program to improv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their children. The experimental group consisted of 42 mothers who have preschoolers in the age range of 3-5, and was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of 42 mothers. They joined together a series of 8 sessions (2 hours or 16 hours?) once a week and took pre- and post-test. All of the sessions were recorded with a VCR camera. All the changing process the mothers showed was analyzed qualitatively to see what happened to the mothers and their children by the methods of coding, taxonomic analysis, critical events, componential analysis, and casual chain analysis suggested by Spradley(1980). The analyses showed that the mothers who participated in the program come to take more sympathetic, receptive attitudes to their children, while the children get better in the children's emotional behavioral problems in the qualitative analysis as well as the quantitative analysis.

Key Words : play therapy, parent education, changing process

### I. 서론

오늘날의 부모들은 자녀를 잘 키우고자 하는 욕구는 있으나 그 구체적 양육 및 훈육 방법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다는 것을 부모상담 및 부모교육 임상장면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다. 또한 자녀에 대한 강력한 학업압력으로 인해 부모들의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고 부모역할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는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모의 능력을 손상시키고(이근후 외, 1988) 이런 상황에서 자녀들의 정서

행동문제, 부모-자녀관계, 또래관계문제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김기현, 2000; 이정순, 2003) 몇몇 연구들에 의하면 사회, 정서문제를 가진 유아들의 비율이 7~24%까지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riggs-Gowan, Carter, Skuban, & Horwits, 2001; Shaw, Keenan, & Vondra, 1994).

부모 및 주변사람들이 아동에게 보이는 직접 또는 미묘한 반응들은 아동의 자기형성에 영향을 미치며(홍숙기, 1990) 이러한 영향들은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평생에 걸쳐 지속되는 경향을 보인다(Robins & Rutter, 1990). 따라서 일생을 통해 역기능이 계속된다는 것은 아

\* Corresponding author: Kum Ok Son  
Tel: 041) 580-2322, 011-894-3362  
E-mail: doudam2002@hanmail.net.

동기의 고통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성인기의 역기능을 예방 또는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기진단 조기개입을 위한 부모 또는 가족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를 증가시킨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외국에서는 몇 가지 유형의 부모 교육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는데 본 논문에서 사용한 접근방법은 부모에게 자녀와의 상호작용 방법을 직접 교육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 실천한 후 그 결과를 함께 나누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특히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방법으로 놀이치료 기법을 사용하였는데, 이 방법은 아동의 가장 자연스런 의사통매체인 놀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과 치료적인 놀이방법을 부모가 자녀에게 사용함으로써 이미 형성되어 있는 부모자녀간의 친밀한 라포를 활용함으로써 개입의 효과를 가속화하는 특징이 있다(Landreth, 1991; Guerny, 1964, 1969). 또한 부모만을 대상으로 한 막연한 부모교육과는 달리 부모들에게 상호작용방법을 시연해 보이고 직접 연습케 하며 회기마다 가정에서 이루어진 상호작용 과정을 비디오로 녹화해 집단에 참여한 다른 부모들과 함께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공감의 하위요소들인 수용적 의사소통, 아동의 자기안내 허용, 개입능력들을 전반적으로 기르고, 아동과의 상호작용방법의 연습을 함으로써 직접적으로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Landreth, 1991). 놀이치료를 활용한 부모교육은 놀이가 갖고 있는 치료적, 예방적 기능을 활용하여 부모 자녀 관계형성 및 태도를 임상의 치료대상이 아닌 일반부모에게도 적용한 프로그램으로 Rogers(1951)의 내담자중심 상담 이론에 근거를 둔 아동중심놀이치료 방법을 활용하며, 이외에도 행동주의적 강화, 사회학습이론의 모델링, 사회적 강화기술, 정신분석 이론의 정화 개념 등도 사용한다(Johnson-clark, 1996; Landreth, 1991). 이 프로그램은 개입세팅에 따라 일대일의 개별세션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10명 안팎의 소집단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후자의 방법으로 소집단을 활용한 Filial therapy 부모교육방법을 사용하였다.

Filial therapy는 주로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아동심리치료 방법인 놀이치료를 부모들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 확장시키고자 한 시도로서 부모로 하여금 아동문제의 치유 및 예방을 위한 대행자가 되도록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이다(Guerny, 1964; Jang, 2000). 구체적으로 부모에게 놀이치료에서 활용하는 기본 기법을 가르쳐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와 직접 놀이시간을 갖게 하여 부모-자녀관계를 강화하고 건강한 부모-자녀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의 정서행동문제를 완화,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Bratton & Landreth, 1995; Guerny, 2000; VanFleet, 1994). Guerny(1964, 1969)에 의해 개발된 Filial therapy는 2,3쌍의 부부 6~8명을 구성

하여 주1회 2시간씩 12~30회의 부모모임을 하는 것으로 실시하였고, 이를 Coufal과 Brock (1979)이 10주간의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 수정해 실시하였다. Landreth (1991) 또한 기간을 10주로 변화해 다양한 인구층에게 실시하여 효과를 얻었고, 국내에서는 장미경(1998)이 우리나라 정상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정상아동 대상 연구이므로 Guerny(1969)와 Landreth(1991)의 실시 세션같이 장기간이 필요하지 않으며, 또한 참여자의 탈락율을 낮추기 위해 8회로 줄여 실시하여 효과적인 연구결과를 얻었다. 이 부모교육 방법을 사용한 연구들은 만성질환아동 부모(Tew, 1997), 일반유아의 부모(Jang, 2000; 장미경 외, 2008) 등이 있었으며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도 있었다(서지영, 2007; 장미경 외, 2008), 분리불안장애아동의 부모(백지은, 2007)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 연구들에 의하면 이 프로그램의 참여가 부모들의 아동에 대한 공감능력의 증진, 개입 기술 강화, 자녀의 행동문제 등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사전, 사후의 효과를 중심으로 검증하는 논문들이 많았으나, 본 논문에서는 개선을 필요로 하는 연구문제에 따라 부모 및 아동들의 변화과정을 질적 분석기준을 활용해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질적 연구결과들을 보완하기 위해 양적분석 자료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1) 놀이치료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 후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공감능력이 증진되었는가?
- 1-2) 놀이치료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과정에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공감능력은 어떠한 변화과정을 보이는가?
- 2-1) 어머니의 놀이치료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가 아동의 정서행동문제를 개선시켰는가?
- 2-2) 놀이치료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과정에서 어머니가 지각한 자녀의 정서행동문제는 어떠한 변화과정을 보이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의 S시와 충남의 C시에 거주하는 3~5세의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모집은 경기 S시의 유아교육기관과 충남 C

시의 유아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전화안내를 통해 놀이치료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취지를 설명하고, 그 중 참여를 희망한 4개의 유아교육기관 어머니들로 구성하였다. 실험집단은 대상 자녀가 유아교육기관에 취원 중이고, 1주일에 1회씩의 집단 모임에 8주간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자녀와의 가정놀이세션이 가능한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프로그램은 4개의 소집단으로 운영되었고, 실험집단 A에 11명, 실험집단 B에 10명, 실험집단 C에 9명, 실험집단 D에 12명이 참가해 총 42명으로 운영되었다. 실험집단을 소집단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은 소집단 형태가 집단 역동과 프로그램의 효과 면에서 가장 적절하다는 연구결과에 따른 것이다(Guerney et al., 1980; Landreth, 1991). 또한 참여의사를 밝혔으나, 직장이나 시간적 문제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어머니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이중 42명에게 동의를 구해 통제집단을 구성하였으며 연구가 종료된 후 프로그램에 참여키로 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비교한 결과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으며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질적 분석의 결과를 지지하기 위해 양적 자료를 추가하였으며 양적 분석에 사용된 도구는 아래

와 같다.

1) 성인-아동 상호작용 공감척도(MEACI)

놀이치료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실시 후 공감능력 변화에 대해 측정하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도구로 성인-아동 상호작용 공감척도(Measurement of Empathy in Adult-Child Interaction: MEACI)를 사용하였다. MEACI는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관련된 공감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기 위해 Stover, B. Guerney, O' Connell(1971)이 개발한 척도로 성인-아동 상호작용에서 공감적인 것으로 확인된 3가지의 구체적 부모행동요인 즉, 수용적 의사소통, 아동의 자기안내 허용, 부모의 개입을 직접 관찰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수용적 의사소통은 자발적 놀이세션 동안에 일어나는 아동의 감정과 행동에 대한 부모의 수용과 거부를 측정하며, 아동의 자기안내 허용은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기 보다는 자녀의 주도를 적극적으로 따르려는 행동을 측정한다. 개입은 아동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개입과 관심을 측정한다.

채점은 사전·사후 검사에서 촬영한 20분짜리 비디오테이프를 3분 간격으로 6회로 나누어 공감의 3가지 차원을 5점 양극 척도를 사용 평가하였다. 평가는 관련 전공분야의 석사졸업, 박사과정 이상의 놀이치료자로서 Filial Therapy 프로그램을 훈련 받은 평정자 3명이 3주간에 걸쳐 실시하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비교

변인	구분	실험집단(N=42) %(N)	통제집단(N=42) %(N)	$\chi^2$	p
모 학력	고 졸	19.0 (8)	40.5(17)	5.13	0.08
	대 졸	73.8(31)	57.1(24)		
	대학원졸	7.1 (3)	2.4 (1)		
모 직업	회사원	42.9(18)	42.9(18)	3.91	0.42
	자영업	40.5(17)	47.6(20)		
	공무원, 교원	11.9 (5)	2.4 (1)		
	전문직	0.0 (0)	2.4 (1)		
	기타	4.8 (2)	4.8 (2)		
모 종교	기독교	33.3(14)	31.0(13)	5.63	0.23
	천주교	16.7 (7)	9.5 (4)		
	불교	4.8 (2)	9.5 (4)		
	무교	45.2(19)	40.5(17)		
	기타	0.0 (0)	9.5 (4)		
자녀의 성별	남 아	57.1(24)	61.9(26)	0.20	0.66
	여 아	42.9(18)	38.1(16)		
자녀의 출생순위	첫 째	52.4(22)	66.7(28)	1.78	0.18
	둘 째	47.6(20)	33.3(14)		
		M(SD)	M(SD)	t	p
모 연령(세)		36.79 (2.76)	36.38 (2.37)	0.72	0.47
가정 수입(만원)		291.90 (98.16)	281.90 (65.24)	0.39	0.70
자녀 연령(개월)		70.00 (5.52)	70.43 (4.49)	-0.39	0.70

였다. 평가는 평정자들이 토의를 거쳐 20분짜리 놀이세션을 함께 평가하는 훈련을 3세션 실시한 후 평정자들이 독립적으로 놀이세션을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평가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표 2>, <표 3>와 같이 평정자간 일치도를 구하였다.

<표 2> 사전검사 : 성인-아동 상호작용공감척도(MEACI)의 평정자간 일치도

구분	평정자 1	평정자 2	평정자 3
평정자 1			
평정자 2	0.95		
평정자 3	0.96	0.91	

<표 3> 사후검사 : 성인-아동 상호작용 공감척도(MEACI)의 평정자간 일치도

구분	평정자 1	평정자 2	평정자 3
평정자 1			
평정자 2	0.96		
평정자 3	0.92	0.95	

## 2) 아동행동평가척도(K-CBCL)

아동의 행동문제를 측정하기 위하여 Achenbach(1991)가 표준화한 아동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CBCL)를 오경자, 이혜련, 홍강의, 하은혜(1997)가 한국판으로 표준화하여 만든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Korean-Child Behavior Checklist: K-CBCL)를 사용하였다. K-CBCL은 사회능력척도와 행동문제증후군 척도로 구성되어있고, 행동문제증후군 척도는 119개의 행동문제에 관한 항목으로 '전혀 없다'는 0점, '가끔 보이거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는 1점, '자주 있거나 심한 경우'는 2점의 3점 척도로 평가하게 되어있다.

## 3. 연구기간 및 절차

본 연구는 사전·사후통제집단설계(Pretest-Posttest Control Group Design)로 2007년 9월 말에서부터 12월 초에 걸쳐 사전 검사를 위한 사전세션 1주, 주 1회씩 8주간의 놀이치료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실시, 종료 후 사후검사 및 연구 참가자들과의 인터뷰 1주 등 총 10주에 걸쳐 실시되었다. 사전·사후 검사 및 프로그램 진행은 연구대상자 아동들이 취원하고 있는 유치원에서 실시되었으며, 사전·사후검사는 방과 후 빈 교실들에서 연구대상자 어머니들의 시간을 고려해 검사시간을 정하고 아동과의

놀이세션을 녹화하였으며, 질문지 작성을 하도록 하였다.

놀이치료를 활용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은 장미경(1998)이 우리나라 정상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적용된 8주간의 Filial therapy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프로그램의 진행은 관련분야 박사인 연구자와 박사과정의 1인에 의해 두 집단씩 진행되었다. 2인의 진행자들은 놀이치료자로서 Filial therapy 프로그램을 훈련받았었고, 프로그램 진행을 실시했던 경험이 있는 자로서 프로그램 진행 자격을 지녔다. 또한 본 연구의 프로그램 진행 전 사전 협의를 통해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이해와 충분한 토의를 거쳐 프로그램 진행과정을 조율함으로써 치료자간의 진행상 차이가 없도록 하였다. 놀이치료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진행은 참가한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8주간 실시되었고, 1회당 진행시간은 1시간 30분~2시간 정도였으며, 참가자들의 동의를 구해 프로그램 진행 전 과정을 비디오로 녹화하였다. 참가한 어머니들에게 프로그램을 통해 이론, 실연, 역할극, 모델링을 통해 놀이치료 기술을 배우도록 하고, 배운 기술을 토대로 가정에서 자녀와 1주일에 1회, 30분씩의 놀이세션을 실시하게 하였다. 실시된 가정놀이세션에 대해 메모해 오도록 하여 다음 모임 때 경험을 발표하게 하였고, 보고되는 내용을 연구자의 노트에 기록하며 적절한 슈퍼비전을 주고자 하였다. 실시된 프로그램 진행과정을 요약하면 <표 4>와 같다.

## 4.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사전검사, 프로그램 진행과정, 사후검사의 전 과정에서 양적, 질적 자료를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하였다. 먼저 양적 자료들은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에 실시된 사전·사후검사에서 실시한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현황을 묻는 질문지, 아동의 행동문제에 관한 K-CBCL 질문지, 그리고 어머니와 자녀의 독립적인 놀이장면을 촬영한 테이프를 성인-아동 상호작용 공감척도(MEACI)에 의해 평가한 자료를 통해 수집하였다. 또한 질적 자료들은 프로그램 진행 전 과정을 녹화한 비디오 테이프와 연구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기록해 온 참여관찰노트, 어머니들이 가정놀이세션 진행과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해 보고하기 위해 기록해 온 메모,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를 녹음한 오디오 자료 등을 통해 수집하였다. 얻어진 자료 중 녹화테이프와 녹음 자료는 모두 전사과정을 거쳐 문서화하였다. 얻어진 자료는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을 병행해 분석하였다. 먼저 수집된 자료 중 양적인 자료들은 통계프로그램 SPSS 15.0을 사용하여  $\chi^2$ , t검증, 공변량분석

<표 4> 놀이치료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진행과정 요약

회기	프로그램 진행 과정
사전 세션	놀이치료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취지와 의의, 기본일정 및 주의사항 및 놀이세션에 대한 비밀 보장에 대해 안내. 순서를 정해서 어머니들과 자녀와의 놀이장면을 20분간 촬영 자녀문제행동 목록(K-CBCL)작성
1세션	참여어머니들의 참여 동기 및 자기소개 및 놀이치료 대상아동에 대한 소개 프로그램의 목적 및 일정소개, 반영적 경청 및 행동추적에 대한 설명 및 연습 과제 - 전에 보지 못했던 자녀의 신체적 특징 알아오기 4가지 기본감정에 대한 반영적 경청 실천하기
2세션	과제 확인 및 토론, 프로그램의 기본원칙 검토, 가정놀이세션에 필요한 놀이감 선택기준 설명 (놀이감 목록을 함께 보기). 놀이기법 설명 및 역할연습 자녀와 함께 하는 가정놀이세션에 대해 설명하면서 놀이시간의 특별함 강조 과제 - '반영적 의사소통촉진' 유인물을 읽어오기, 가정 놀이세션을 실시할 수 있는 특별한 놀이장소 선정해오기, 자녀와 신체적 접촉하고 느낌과 빈도 기록해오기
3세션	과제 확인-가정놀이세션을 실시할 장소, 시간 발표 및 반영적 의사소통에 관한 유인물 토론 놀이치료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훈련의 기본 규칙 설명: '하러와 하지마라' 규칙 소개, 가정 놀이세션 실시를 위해서 중요한 규칙 복습, 기타 주의사항 안내, 비디오 촬영해 발표할 어머니 정하기 과제 - 배운 내용을 기초로 첫 번째 가정 놀이세션 실시하기 감정에 대해 인식하고 자녀와 신체 접촉 연습하기
4세션	첫 번째 가정놀이세션에 대해 발표하고 토의하기 - 녹화해 온 가정놀이세션 비디오 시청, 토의하기 2가지 훈육기술에 대해 설명- 확고한 제한설정, 능력에 상응하는 수용할 만한 선택주기 연습, 공동적인 의문사항 토의, 행동추적과 반영적 경청하기 연습을 하는 시간을 갖기 과제 - 계속해서 가정놀이세션을 하면서 느껴지는 강력한 감정에 주목하기 자녀와 신체적 접촉 계속하기
5세션	가정놀이세션에 대해 보고하기 - 가정놀이세션 비디오시청하고 토론하기 지난주 과제확인 - 놀이세션 실시 할 때 느꼈던 강력한 감정에 대해 토론하기 제한 설정방법에 대해 토의하고 연습하기
6세션	가정놀이세션에 대해 보고하기 - 가정놀이세션 비디오 시청하고 토론하기 공동적으로 부딪히는 문제-8가지 예상 문제 함께 보기, '제한설정이 효과가 없을 때' 유인물 검토 과제 - 3주 동안 자녀에게서 주목되는 점 노트해오기, 자녀의 놀이패턴에 주목하기
7세션	가정놀이세션에 대해 보고하기 - 가정놀이세션 비디오시청하고 토론하기 공동적으로 부딪히는 문제토론하기 마지막세션에 대해 이야기하고 가정놀이세션이 프로그램 종료 후에 대한 토의
8세션	가정놀이세션에 대해 보고하기 - 가정놀이세션 비디오시청하고 토론하기 지금까지 학습한 중요한 원칙 및 규칙의 복습 놀이치료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하면서 어머니들이 느낀 점 나누기, 자녀 및 어머니 자신의 변화과정 나누기, 집단을 떠나는 감정다루기
사후 세션	사전검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설문지 작성 사전검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험집단, 통제집단 어머니와 자녀의 20분 놀이장면을 비디오 촬영

을 실시하였고, 질적 자료들은 제시된 <표 5>와 같이 Spradley(1980)가 제안한 주제별 약호화와 분류(주제별 과 일화), 주요 사례추출, 분류체계 분석, 성분분석, 원인연쇄 분석의 방법으로 질적 분석 하였다.

질적 분석의 과정은 먼저 프로그램 진행 과정을 녹화한 테이프를 전사한 자료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영역분석(domain analysis)을 통해 가장 중요하게 추출된 주제들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주제들을 가지고 프로그램 전 과정에서 나타난 어머니들의 변화과정에 대해 주제별 약호화(coding)를 실시하였다. 영역분석이나 주제별 약호화 분석 결과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영역에 대해서 분류체계

분석을 통해 분석할 영역을 선정하고 Spradley(1980)가 제안한 참여관찰방법에 의해 포용할 수 있는 영역별로 분류하여 분류체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분류체계분석만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없는 개념의 속성과 상호 대조 관계에 있는 개념들에 대한 정의를 수집하고 그 성분의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성분분석의 과정을 거쳤다. 성분분석은 분석할 특성에 대해 선정하고 대조목록을 만들어 분석을 실시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실시된 분류체계분석과 성분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에 대해 원인연쇄분석을 실시하여 분류체계분석과정에서의 분류들 간에 발생한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lt;표 5&gt; 질적 자료 수집방법과 분석방법

자료 수집방법		자료 분석방법	
1. 문서자료 (프로그램 전 과정을 녹화한 테이프 전사자료)	↔	① 영역분석	↔
2. 참여관찰자료 (연구자가 참여하며 기록한 참여관찰 노트)		② 주제별 약호화와 분류 (주제별 파일화)	
3. 서술적 관찰자료 (참가자들이 가정에서 이루어졌던 놀이세션진행과 자녀의 행동문제에 대해 작성해 온 메모)		③ 주요사례 추출	
4. 심층 면담 자료 (프로그램 진행 중 참가자들과 나누었던 질문이나 대화내용 기록 자료, 개별 인터뷰 내용 전사자료)		④ 분류체계 분석	
	⑤ 성분분석		
	⑥ 원인연쇄분석		

프로그램 참가자들과의 개별적인 면담 내용과 사후 인터뷰 등을 통해 얻어진 심층면담의 자료들 역시 Spradley (1980)가 제안한 참여관찰방법에 제시된 의미론적 관계에서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에게 나타난 특징을 영역별, 시기별로 구분하여 각 시기의 특징을 찾아내어 그 특징이 잘 드러나는 사례를 선택하였고, 이 사례들과 관련 있는 사례가 있는지 구성 사례들 간의 관계를 탐색하는 분류체계분석과 함께 각 사례의 의미를 생각하여 성분분석을 하여 어머니들의 공감능력의 변화과정 사례들이 갖는 의미론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각 범주를 유목화 하였고, 이를 다시 중간 분류의 형태로 중간 제목 하에 관련된 하위 제목들끼리 묶고 중간 분류의 제목을 붙여서 중간 분류를 관련된 것끼리 묶어 상위 분류를 하였으며, 이와 같은 항목 분류를 수차례 반복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가 가질 수 있는 편견을 최소화하고 본 연구의 사례 분석 결과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구자는 Lincoln과 Guba(1985)가 제시한 삼각측정법(triangulation)을 적용하여, 관찰, 면담, 보고자료, 연구대상자들과의 인터뷰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분야의 전문가 3인에게 연구자의 질적 분석, 해석에 대한 생각과

조언을 구하며 연구자와 전문가 3인의 합치된 분석 내용의 타당도를 평정하고자 하였다.

### III. 결과 및 해석

#### 1. 놀이치료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가 어머니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 1) 놀이치료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 전·후 나타난 어머니의 공감능력의 변화 비교

놀이치료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들의 프로그램 참가 전·후의 공감능력의 변화를 비교하고, 통제집단과 차이에 대해 MEACI척도를 사용하여 평가해 <표 6>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분석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사전검사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사후 검사에서는 실험집단 어머니들의 공감의 총점 및 하위 변인 별 점수가 프로그램 참여 전보다 참여 후에 의미 있게 향상되었다. 또한 사후검사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

&lt;표 6&gt; 공감 하위변인별 사전·사후검사 점수의 비교

구분		사전검사			사후검사		
		M	SD	t	M	SD	t
수용적 의사소통	실험	18.95	9.09	0.36	12.52	5.87	-3.21**
	통제	18.25	8.81		17.87	9.07	
아동의 자기안내허용	실험	10.83	1.36	1.29	6.45	1.16	-14.00**
	통제	10.44	1.40		10.20	1.29	
개입	실험	7.55	1.41	0.17	4.70	1.22	-10.03**
	통제	7.49	1.57		7.46	1.29	
공감총점	실험	37.32	9.43	0.58	23.69	6.77	-6.69**
	통제	36.19	8.91		35.52	9.24	

P\* < .05, P\*\* < .01

미한 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t검증에서도 공감의 3개 하위변인과 총점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2) 놀이치료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과정에서 나타난 공감의 하위변인별 변화 과정에 대한 탐색

놀이치료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들에게 3회 모임 이후부터 프로그램에서 배웠던 내용을 기초로 가정에서 자녀와의 놀이세션을 주 1회 30분 정도씩 갖도록 하였고, 이때 이루어졌던 놀이와 느꼈던 감정을 기록해오도록 하여 다음 모임인 4~8회 모임 중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가정놀이세션에 대해 어머니들이 보고했던 내용들은 녹화하였고, 이를 전사하여 자료화하였다. 전사된 자료들은 질적 분석과정을 통해 영역분석(domain analysis)하여 공감능력의 변화를 중심으로 공감의 하위변인을 수용적 의사소통, 자녀의 자기안내의 허용, 성인의 개입으로 분류하였고, 각 하위 변인 별로 어머니들의 변화과정을 탐색하였다. 또한 주요사례들을 추출하여 주제별로 분석, 유형화하고 관계를 탐색하는 분류체계분석을 실시하고, 성분분석, 원인연쇄분석을 실시하였다.

(1) 수용적 의사소통능력의 변화과정

① 수용적 의사소통 시도하기

어머니들은 첫 가정놀이세션이 실시되기 이전에 이미 3회의 모임에서 이루어진 놀이치료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교육을 통해 수용적 의사소통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접하고, 참가자들끼리의 역할극(role play)을 통해 충분한 실습의 과정을 거친 후 이를 바탕으로 가정놀이세션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충분한 준비과정을 통해 접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와의 놀이 경험이 부족했고, 수용적 의사소통의 사용이 적었던 어머니들은 자녀와의 처음놀이세션에서부터 수용적 의사소통을 사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들은 수용적 의사소통을 시도하고자 반영적 경청을 통해 수용적 의사소통을 시도할 기회를 엿보며 주저하는 행동적 특성과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시도를 보이는 행동적 특성들을 보였다.

㉠ 조심스러운 기회 엿보기

수용적 의사소통을 처음 시도하려는 어머니들은 가정놀이세션 초기에 놀이치료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지식을 적용해보려 기회를 엿보며 언제, 어떻게 시도해야 할지에 대해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어머니들이 배우고 이해했던 이론적 지식들을 실제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시행착오들을 경험하며 습

관화 되지 않은 수용적 의사소통에 대한 이해와 적용이 더 필요하며, 자녀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더 필요함을 느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어머니 40 : 저는 어색해서 말하는 게 너무 힘들더군요. 행동이나 감정을 읽어주는 게 잘 될지 걱정이 많이 되네요. '하는 구나', '~하네'란 표현도 어색하게 들릴 것 같구요. 그런데 OO이도 제가 하는 말이 이상하게 들리는지 '왜 그렇게 말해?'물었어요. 평소 제 말투랑 많이 달라서 그런 가깝니다(가정놀이 1세션에 대해 보고하기에서 - 4회중)

어머니 29 : 저는 평소 OO이가 일만 저지르지 않으면 그냥 놔두는데 놀이할 때 제가 더 옆에 붙어 말을 하는 게 아이한테 어색할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OO이는 제가 옆에 앉아서 쳐다보고 말해줘서 그런지 표정이 좋아보였습니다. 관심을 가져주는 걸 느꼈나 봐요. 저도 그동안 관심을 가져줬지만 이런 식으로는 한 번도 안 해봐서 어색합니다(가정놀이 2세션에 대해 보고하기에서 - 5회중)

② 첫 시도하기

놀이치료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어머니들 중 대부분은 가정놀이 첫 세션에서 이미 이루어진 3회의 교육에서 다뤘던 이론과 역할극(role play)을 통해 반응의 예로 배웠던 구체적인 방법들을 적용해보려는 조심스러운 첫 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때 어머니들의 첫 시도에 대해 보이는 자녀들의 반응은 이후 어머니들이 수용적 의사소통을 더 많이 시도하도록 격려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들이 소극적인 반응을 보인 사례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례의 어머니가 수용적 의사소통을 더 긍정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어머니 3 : 아이가 현미경을 보면서 거울이라고 해서 속으로는 그게 아니라고 알려주고 싶었지만 그러지 말라고 한 게 생각나서 그럴 수 없었어요. '넌 그게 거울처럼 보이는 구나'라고 했더니 '어'라고 대답했어요...(중략)... 사물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아도 짧은 시간에 다른 장난감에 눈을 돌리며 잘 놀더군요. 괜히 아는 척해서 아이의 놀이를 방해할 뻔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가정놀이 1세션에 대해 보고하기에서 - 4회중)

어머니 14 : OO이가 장난감이 이것저것 많으니까 하나 하나 구경하더라고요. 곰돌이 인형이 OO이가 보기에 귀여웠던 것 같아요. 한참 만지작거리고 누웠다가 여기 놔다 저기 놔다 하더라고요. 침대랑 의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고만 있기 그래서 마음먹고 반영적 경청을 해봐야지 해서'곰돌이가 귀엽나 보구나~'라고 했더니 OO이가 저를 썩~ 보더라고요. 저랑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거든요. 장난감 이것저것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곰돌이를 제 얼굴 쪽으로 보여주면서'너무 귀엽지?'라고 하더라고요. 의외였

어요(가정놀이 1세선에 대해 보고하기에서 - 4회중)

## ② 다양한 시도로 확장

놀이치료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어머니들은 가정놀이의 횟수가 증가하면서 자녀와의 놀이가 익숙해져 갔으며, 어머니가 시도하는 수용적 의사소통에 대해 자녀가 즐거운 감정을 드러내는 것에 용기를 얻어 초기 가정놀이세션에서 나타났던 주저하기가 감소하였고, 보다 다양한 상황과 더 많은 횟수에 걸쳐 수용적 의사소통을 시도하려는 행동적 특성을 보였다. 또한 다른 어머니들의 놀이 경험 보고와 연구자의 슈퍼비전을 통해 얻은 지지와 조언은 어머니들이 적용할 수 있는 수용적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이해를 더 넓히고 민감성을 증가시키면서 어머니들의 수용적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1 : 아이가 계속 뭐 할 건지 물길래, 그게 물라서 묻는 게 아니라 저랑 같이 놀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서 'OO이가 나랑 같이 놀고 싶구나' 했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저는 제가 대답을 어떻게 해줘야 하나 그동안 고민한 게 웃기더군요(가정놀이 3세선에 대해 보고하기에서 - 6회중)

어머니 35 : 5분 남았는데 OO이가 아쉬움을 표했어요. 그냥 평소 하던 버릇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OO이가 더 하고 싶은가보다 생각했죠. 그래서 'OO아~ 엄마랑 놀이 더 하고 싶지~' 그랬더니 그렇다고 끄덕이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은 지켜야 하나까 제가 'OO이 마음은 엄마가 잘 알겠는데 오늘은 시간이 다 되서 그만해야 될 것 같아 다음에 더 재미나게 놀자'라고 했어요. 사실 별 기대 없이 말했어요. 투정을 부릴 거라 생각하고.. 그런데 OO이가 아무 말 없이 주섬주섬 일어나더라고요. 너무 기분 좋았어요. 그래서 이 놀이 끝나고 OO이랑 놀이터 나가서 같이 놀았어요(가정놀이 3세선에 대해 보고하기에서 - 6회중)

## ③ 수용적 의사소통의 증가와 보편화

가정놀이세션 초기에 수용적 의사소통을 조심스럽게 시도하기 시작한 어머니들은 가정놀이세션이 계속되면서 자녀의 반응에 용기를 얻어 수용적 의사소통을 보다 다양하게 적용하기 시작했고, 프로그램 종반에 이루어진 자녀와의 가정 놀이 세션에서는 어머니들의 경험이 보다 풍부해지면서 수용적 의사소통을 보다 자연스럽게 적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어머니 25 : 공룡들을 보석상자 속에 넣어 뚜껑을 닫고, 그 위에 다른 고무찰흙을 얹은 후 또 두드렸어요. 이번 주에는 제가 좀 더 OO마음을 더 잘 읽어주려고 'OO가 신나겠다...<중략>' 쿵쿵 쿵쿵 더 세게 두드리네' 하면서 반영해줬어요. 아이가 두드리면서 표정이 밝아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어요(가정놀이 5세선에 대해 보고하기에서 - 8회중)

어머니 34 : 머리 빗겨주고 하다가 저한테 어떻게 해줄까 하고 물더라고요.'OO이가 마음에 드는 대로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도 OO이 머리처럼 해줄게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리저리 자르는 시늉을 하더라고요. 다 하고는 됐다고 그랬어요. 이젠 알아서 놀이도 잘하는 것 같아요. 망설임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가정놀이 5세선에 대해 보고하기에서 - 8회중)

## (2) 아동의 자기안내 허용에 대한 어머니들의 태도 변화과정

### ① 아동의 자기안내 허용 시도하기

부모들은 자녀들을 아직까지 미성숙한 존재로 보며, 아동의 문제를 부모가 판단하여 적절한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인다(Lamb et al., 2004). Landreth (1991)는 아동중심놀이치료에서 아동의 문제보다는 아동이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초점을 맞추어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현재와 미래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보다 적절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부분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동이 자기 문제를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치료자는 아동의 행동이나 대화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아동을 따라가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놀이치료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과정에서의 어머니들은 아동의 자기안내 허용에 대해 가정놀이세션 초기에는 이미 배웠던 것들을 시도할 기회 엿보며 주저하는 행동과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② 조심스러운 기회 엿보기

아동의 자기안내 허용에 대해 어머니들은 가정놀이초기세션들에 주저함을 보이며 적용해 볼 기회를 엿보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아동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자아실현(Self-Actualization)의 욕구가 아동 내부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왔던 어머니들이 아동의 자기 안내 허용에 대해 아직까지 확신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이미 이전 3회의 교육을 통해 아동의 자기 안내 허용을 이해는 하고 있지만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어려움을 보였다. 이를 통해 가정놀이세션초기에 아동의 자기안내를 허용의 실천에 어려움을 겪는 어머니들의 실천의지를 높일 수 있는 지지적 슈퍼비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머니 3 :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OO를 위해 놀이를 할 건데 어디서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봤어요. 이걸 배우지 않았다면 그냥..제가 방에서 하자고 혼자 정해 버렸



을 텐데...<중략> 애가 지난 번 만들어준 냉장고박스로 만든 집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너무 커서 베란다에 놔두었거든요. 할 수 없이 약속을 했으니 그냥 같이 들어가서 하기로 했습니다(가정놀이 1세선에 대해 보고하기에서 - 4회중)

어머니 38 : 00가 플레이 도우의 찍기 있잖아요. 알파벳 찍기, 그걸 하는데 알파벳을 보면서 저한테 '이게 무슨 자 인지 알아?'라고 자꾸만 물었어요. 묻는 거의 종류가 많지는 않았는데 계속해서 '이게 뭔지 알아? 이게 뭔지 알아?' 그랬어요. 00가 영어를 잘 몰라서 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알려주고 싶었어요. 이걸 A다 C다. 이런 식으로...<중략> 그런데 그냥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뭘까?' 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척을 했어요(가정놀이 1세선에 대해 보고하기에서 - 4회중)

⑤ 첫 시도하기

수용적 의사소통에서와 마찬가지로 아동의 자기안내 허용에서도 어머니들 중 대부분이 가정놀이초기세션에서 이미 이루어진 3회의 교육에서 다뤘던 이론과 역할등(role play)을 통해 반응의 예로 배웠던 구체적인 방법들을 적용해보려는 조심스러운 첫 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경우의 어머니들이 자녀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경우 보다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자기안내 허용을 더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6 : 공룡 중에서 티라노사우르스를 찾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00이가 여기서 선택할 수 있다'고 몇 차례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결국은 공룡 놀이를 포기해 버렸습니다. 아이에게 결정하게 해 주었더니 이내 그걸 쉽게 포기했어요. 아이가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니 내가 무얼 잘못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가정놀이 1세선에 대해 보고하기에서 - 4회중)

어머니 10 : 저한테 첫째는 너무 귀여운 딸이라 일일이 제가 다해줬어요. 아이가 장난감을 만지다가 조금이라도 막혀 하면 제가 바로 '이리 줘 봐 이렇게 하는 거야' 먼저 도와주고 제가 앞섰어요. 이번에 배워보니 제가 아이한테 기회를 안주고 있었구나 생각이 들더군요. 정말 그냥 놔두니까 아이가 스스로 이야기도 꾸미고 뭔가 혼자서도 놀이에 집중하는 걸 보고 참 신기했습니다. 쳐다보면서 OO이도 이렇게 놀이를 할 수 있구나 새삼스러웠어요(가정놀이 2세선에 대해 보고하기에서 - 5회중)

② 다양한 시도로 확장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가정놀이세션이 증가하면서 놀이 치료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어머니들은 아동의 자기안내 허용이 더 많이 시도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이때에도 자녀들이 보이는 반응이 긍정적인 경우의 어머니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다양하고 많이

자기안내 허용을 시도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어머니 14 : 장난감들이 눈앞에 있는데 먼저 만지면 안 되잖아요. 그냥 00이가 하는 걸 보고 있었지요. 평소 같으면 이것저것 제가 만졌을 텐데 기다리니까 00이가 '엄마 뭐하고 싶은 거 없어?' 해요. 골라보라고 해서 고를까 하고 손이 나갔다가 다시 멈추하면서 '음~ 뭐가 좋을까?' 하면서 보는 척 했어요. 제가 그러고 있으니까 00이가 먼저 찰흙을 고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이거 하자' 그러길래 좋다고 하면서 같이 했어요. 00이가 제가 고를 때까지 기다려 줄 줄 알았는데 하고 싶은 걸 고르네요(가정놀이 3세선에 대해 보고하기에서 - 6회중)

어머니 25 : 00이가 인형을 바닥에 짹 놓더니 뽕망치를 들어요. '엄마 이거 어떻게 할까?'라고 잘 되지도 않는 발음으로 막 이야기해요. 제가 듣기로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거였어요. 그래서 '글쎄~ 어떻게 하지?'라고 해주다가 '00이가 알려주는 대로 엄마가 따라 할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막 설명을 해요 그럼 이제부터 가위바위보 해서 진 사람 것을 뽕망치로 이제 그 사람 꺼 인형 때리자고 그래요. 그 작은 인형을 그걸 때리자고 했어요. 참 그거 보면 우리 00이가 맞나 싶기도 하고 아주 괜찮았어요(가정놀이 3세선에 대해 보고하기에서 - 6회중)

③ 아동의 자기안내 허용의 증가와 보편화

놀이 치료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어머니들은 가정에서의 놀이세션을 통해 자녀와의 놀이경험이 증가해 가면서 아동의 자기안내 허용을 주저하지 않고 더 많이 실천하는 모습을 보였다.

어머니 23: 미용실 놀이에서 드라이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건전지도 없고 그냥 드라이기 모양이잖아요. 그랬더니 00이가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나 똑같이 반영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입으로 바람 불어서 시원하게 하더라고요. 전 사실 00이가 어떻게 하려나 하고 있었거든요. 다 물어보는 거에 대답을 하고 방법을 알려줄 필요는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몰라서 물어본다는 것은 어른들 생각이었구나 생각했어요(가정놀이 5세선에 대해 보고하기에서 - 8회중)

어머니 36 : 배 아픈 놀이 다하고 진찰 다 되었다고 하고는 저한테 '엄마 아픈데 또 없어?' 하더니 '이는 안 아파?'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하고 보여줬어요. 입 속을요. 제가 아프다 안 아프다 하기 보다는 00이가 보고 하고 싶으면 하더라고요(가정놀이 5세선에 대해 보고하기에서 - 8회중)

(3) 자녀와의 놀이에서의 개입의 변화 과정

① 자녀 놀이에의 적절한 개입 시도하기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주로 어머니가 먼저 제안하고, 문제에 대해 판단해버리고, 해결방안을 주는 경향을 보인다(유안진, 김연진, 1992; Maccoby &

Martin, 1983; Maccoby & Mullis, 1990). 놀이치료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어머니들의 가정놀이세션 초기에서도 이렇게 지시적이고 설명적이던 어머니의 역할에서 자녀의 주도성을 인정하는 어머니로의 변화는 쉽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어떻게 적절히 접근해야 할지 주저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다.

#### ㉔ 조심스러운 기회 엿보기

앞서 살펴본 수용적 의사소통이나 자기안내 허용에서는 아동과의 놀이경험이 증가해가며 시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개입능력의 변화에서는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식과 아직까지 자신이 없는 개입의 시도의 실제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하면서 자녀의 놀이를 주도하고 개입하려는 시도에서 주저하고, 무조건적 침입의 개입이 감소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시도한 개입을 적절한 개입이 판단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양상이 많이 나타났다. 따라서 어머니들의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보다 많은 아동과의 놀이경험이 필요하며 적절한 슈퍼비전을 통해 어머니들의 자신감과 실천의지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머니 2 : 안하다 아이랑 놀이하러니까 너무 어색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가끔 OO가 물으니 그때나 대답해주고, 그냥 OO가 어떻게 놀이나 구경만한 거 같아요. 뭔가 말을 해주긴 해야 한다싶고 해서 이거 알아? 뭐 이런 질문만 그냥 계속 한 거 같아요(가정놀이 1세션에 대해 보고하기에서 - 4회중)

어머니 23: OO이가 특별히 말이 없었어요. 자동차를 해도 같이 하자, 어떻게 한다는 그런 말도 없이 왔다 갔다 하게하고 그래서 저는 계속 앉아서 보기만 했어요. 그냥 제가 말하면 가끔 웃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로 만족했어요(가정놀이 1세션에 대해 보고하기에서 - 4회중)

어머니 33 : 막상 아이랑 놀이를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조심스러웠어요. 그런데 아이가 놀이에 저를 끼워주지 않고 저 혼자 재미있게 노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 제가 아이가 원하는 걸 놓쳤을 것 같기도 해요(가정놀이 1세션에 대해 보고하기에서 - 4회중)

#### ㉕ 첫 시도하기

놀이치료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어머니들은 자녀가 놀이의 주도권을 가지며, 어머니는 적극적인 추종자가 되어야 함을 이미 교육 받아 이해하고 놀이세션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놀이세션초기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습관화 되었던 개입이 나타나는 등의 시행착

오를 경험하는 행동적 특성이 나타났고 어떻게 접근할까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어머니 34 : OO이가 병원놀이에 있던 현미경을 꺼내서 살펴보더라고요. 그냥 보다보다 하고 OO이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계속 요리보고 저리보고 해서 그냥 놔두면 되는데 모르나 싶어서 '그게 뭐하는건 줄 아니?'라고 물었어요. 묻고 나니까 그냥 먼저 말 꺼낼 때 까지 놔둘걸 싶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을 제가 15분 5분 3분 계속 이렇게 이야기 계속 이야기 해줬어요. 나중에는 OO이가 제 눈치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3분 정도 남았을 때는 제가 시계를 보니까 '엄마 이제 3분 남았지?'라고 먼저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 놀이하는걸 보기보다는 시간을 더 많이 본 것 같아요(가정놀이 1세션에 대해 보고하기에서 - 4회중)

어머니 37 : 다트던지기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하면 점수 높는데 맞는 거야 라고 말해줬어요. 이기게 하는 방법을 알려 준거긴 한데도 그냥 두고 봐야 되는 거지요? 제가 말하니까 OO가 그렇게 던져보려고 자세를 잡긴 하더라고요(가정놀이 1세션에 대해 보고하기에서 - 4회중)

#### ㉖ 다양한 시도로 확장

가정놀이세션이 거듭되면서 어머니들은 개입능력이 향상되고, 자녀의 놀이주도에 충실한 추종자로서 참여하며 반응해주려는 시도를 더 많이 하는 모습을 보였다.

어머니 15: 이제 제가 좀 배운 대로 해야 된다는 것은 생각을 하고 했어요. 신나게 노는 것은 그대로 하고 말하는 것을 좀 OO이 위주로 이야기 해주고 저의 일방적인 이야기는 줄이고 그러면서 신나게 놀았어요. 그냥 편안하게 아이랑 함께 한다 라는 생각으로요. 제가 막 OO이가 싫다는데 일방적으로 장난치는 게 아니라 OO이 위주로 맞춰서 해주다 보니까 OO이도 좋아하는 것 같고 저 역시도 좋았어요(가정놀이 2세션에 대해 보고하기에서 - 5회중)

어머니 39: 제가 가슴 이야기 한 것 때문에 OO이가 20분 정도를 계속 찍어보고 웃고 찍어보고 웃고 해서 다른 놀이를 많이 못했어요. 혼자 그러고 웃어서 저도 같이 그냥 얼굴 보고 웃었어요. 서로 가슴에 대보기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OO이랑 간만에 크게 웃어봤어요. 별 것 아닌데 웃게 되더라고요(가정놀이 3세션에 대해 보고하기에서 - 6회중)

#### ㉗ 어머니의 적절한 개입능력의 증가의 보편화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더 많은 가정놀이세션을 경험한 어머니들은 가정놀이세션 초기에 보였던 자녀와의 놀이에 개입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주저함이 감소하고, 가정놀이세션이 거듭되면서 자녀와의 놀이경험이 증가하고, 집단모임을 통해 더 많은 감정을 나누고, 연구자와의 슈퍼비전을 통해 지지와 조언을 받으면서 개입 능력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였다.

어머니 14: 00가 하나도 못 맞출까봐 제가 가까이 다가 주기도 하고 하여튼 일부러 맞출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러면서 놀이를 했어요.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던지고 받으니까 특별히 할 말이 없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가 해주니까 00가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어요. 평소 같으면 이렇게 던져라 저렇게 던져라 했을 텐데 00가 속으로 이상하다 싶었을 거예요(가정놀이 4세선에 대해 보고하기에서 - 7회중)

어머니 40: 계속 혼자 하다가 저한테 같이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의사놀이 했어요. 전 끝까지 저를 안 끼워줄 줄 알았는데 5분 남기고 끼워주네요. 00가 의사하고 저는 환자하고 00가 배 아프다고 하라고 해서 그대로 따라 해줬어요. 같이 하자고 하고서 계속 사키기만 해서 그래도 뭐... 따라서 해 줬어요(가정놀이 5세선에 대해 보고하기에서 - 8회중)

2. 어머니의 놀이치료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참여 과정 중 나타난 자녀의 정서행동문제 변화

1) 어머니의 놀이치료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 후 나타난 아동들의 정서행동문제 개선

어머니의 놀이치료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가 아동들의 정서행동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에서 K-CBCL검사를 실시해 <표 7>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사전검사 점수를 비교한 결과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 사회적 미성숙, 사고의 문제, 비행, 내재화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주의집중, 공격성, 성문제, 정서불안정, 외현화, 총 문제행동에서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후검사를 비교함에 있어서 사전검사점수를 공변인으로 하는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동의 행동문제 중 위축, 신체증상, 우울, 불안, 사고의 문제, 공격성, 정서불안정, 내재화, 외현화, 총 문제행동에 있어 실험집단 자녀들의 문제행동이 통제집단 자녀들에 비해 의미 있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어머니의 놀이치료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과정에서 나타난 자녀의 정서행동문제 변화과정에 대한 탐색

어머니의 놀이치료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가 자녀의 행동문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참가자들에게 가정놀이세션 진행과정과 함께 자녀들의 행동문제 변화에 대해서도 메모해오게 하였고, 모임 때 이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종료 후 참가어머니들

<표 7> 아동행동문제(K-CBCL)점수에 대한 사전검사 점수

구분		사전검사		
		M	SD	t
위축	실험	3.52	2.39	1.23
	통제	2.90	2.21	
신체증상	실험	0.86	1.54	0.81
	통제	0.62	1.10	
우울/불안	실험	5.29	5.46	0.88
	통제	4.43	3.16	
사회적미성숙	실험	3.71	3.66	1.68
	통제	2.57	2.45	
사고의 문제	실험	0.86	1.22	1.45
	통제	0.52	0.86	
주의집중	실험	4.33	4.17	2.94**
	통제	2.24	1.97	
비행	실험	1.90	2.52	1.69
	통제	1.10	1.82	
공격성	실험	8.29	7.40	2.59**
	통제	4.90	4.13	
성문제	실험	0.57	1.42	2.61**
	통제	0.00	0.00	
정서불안정	실험	6.67	5.30	2.72**
	통제	4.14	2.82	
내재화	실험	9.43	8.20	1.36
	통제	7.43	4.79	
외현화	실험	10.19	9.53	2.47*
	통제	6.00	5.45	
총 문제행동	실험	38.86	33.47	2.11*
	통제	26.67	16.78	

P\* < .05, P\*\* < .01

과 개별적인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어머니들의 동의를 구해 내용을 녹음하였고, 이를 전사하여 자료화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얻은 자료들 역시 Spradley(1980)가 적용했던 질적 분석방법으로 영역분석(domain analysis), 주요 사례 추출, 주제별 분석·유목화, 분류체계분석, 성분분석, 원인연쇄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① 자녀의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관심 증가

② 자녀에 대한 어머니 양육태도 제인식

어머니들은 프로그램 진행초기에 아동과의 놀이를 하면서 지금까지 가지지 못했던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 동안 어머니들은 직장생활과 가사활동으로 인해 아동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발생하였고, 놀이치료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자녀와의 효과적인 의

&lt;표 8&gt; 아동행동문제(K-CBCL)의 집단 간 사후검사 점수에 대한 공변량 분석

변인	변량원	MS	df	SS	F
위축	사전검사 점수	29.59	1	29.59	9.79
	집 단	37.69	1	37.69	24.05***
	오 차	3.03	81	245.46	
	전 체		84	810	
신체증상	사전검사 점수	22.65	1	22.65	20.41
	집 단	13.59	1	13.59	12.24***
	오 차	1.11	81	89.92	
	전 체		84	158.00	
우울/불안	사전검사 점수	184.33	1	184.33	14.66
	집 단	251.74	1	251.74	20.03***
	오 차	12.57	81	1,018.15	
	전 체		84	3,046.00	
사회적 미성숙	사전검사 점수	53.24	1	53.24	10.26
	집 단	3.91	1	3.91	0.75
	오 차	5.19	81	420.28	
	전 체		84	802.00	
사고의 문제	사전검사 점수	14.37	1	14.37	32.76
	집 단	5.39	1	5.39	12.28***
	오 차	0.44	81	35.53	
	전 체		84	76.00	
주의집중	사전검사 점수	42.86	1	42.86	8.44
	집 단	0.61	1	0.61	0.12
	오 차	5.08	81	411.43	
	전 체		84	792.00	
비행	사전검사 점수	85.84	1	85.84	33.48
	집 단	2.21	1	2.21	0.86
	오 차	2.56	81	207.69	
	전 체		84	390.00	
공격성	사전검사 점수	573.93	1	573.93	44.28
	집 단	182.31	1	182.31	14.07***
	오 차	12.96	81	1,049.88	
	전 체		84	3,638.00	
성문제	사전검사 점수	9.14	1	9.14	34.71
	집 단	0.00	1	0.00	0.00
	오 차	0.26	81	21.33	
	전 체		84	32.00	
정서불안정	사전검사 점수	353.98	1	353.98	45.21
	집 단	100.33	1	100.33	12.81***
	오 차	7.83	81	634.21	
	전 체		84	2,520.00	
내재화	사전검사 점수	376.27	1	376.27	15.53
	집 단	630.79	1	630.79	26.04***
	오 차	24.22	81	1,962.21	
	전 체		84	7,158.00	
외현화	사전검사 점수	1,046.05	1	1,046.05	45.45
	집 단	232.91	1	232.91	10.12**
	오 차	23.02	81	1,864.43	
	전 체		84	5,888.00	
총문제행동	사전검사 점수	8,064.97	1	8,064.97	27.44
	집 단	3,927.72	1	3,927.72	13.36***
	오 차	293.94	81	23,808.94	
	전 체		84	82,818.00	

P\* &lt; .05, P\*\*\* &lt; .01, P\*\*\*\* &lt; .001

사소통과 혼용방법 등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자녀와의 놀이를 통한 실제 적용이 증가하면서 어머니들이 모르고 행해왔던 잘못된 자녀와의 상호작용 방법에 대한 자기반성과 자녀의 입장에서 행동문제를 다시 생각해보고 이해하려는 인식의 관점 변화가 나타났다.

어머니 12: 00이는 저나 아빠나 의견 충돌이 있으면 인상을 쓰고 감정을 바로 바로 나타내요. 그래서 어린애 벌써부터 그러니 크면 더 하는 게 아닌가 해서 걱정이 되요. 여기서 다른 엄마들이 하시는 거랑 선생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제가 아이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지 않고 너무 못하게만 한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가정놀이 1세션 보고 중 자녀의 행동문제에 대한 보고하기에서 - 3회중)

어머니 19: 평소에는 제가 바빠서이기도 하지만 00이가 저랑 별로 친하다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00이가 말이 별로 없고 집에 같이 있어도 저는 저대로 자거나 TV를 보고 그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00이가 다정하다는 느낌이 별로 없었어요. 둘째는 그래도 저한테 와서 '엄마 이거 하자 저거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기는 하거든요. 아빠한테는 안 그러는데 저한테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말이 좀 많고 저한테 실감하게 하면 좋겠는데 이거 하면서 좀... 친해질 수 있으면 좋겠네요. 부모-자식간에 친해진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요?(가정놀이 2세션 보고 중 자녀의 행동문제에 대한 보고하기에서 - 4회중)

**㉞ 자녀의 정서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에 대한 관심 증가**

프로그램에 참가한 어머니들은 모임에서의 이론 교육과 가정놀이세션을 통해 적용해본 실재를 통해 자녀의 행동이 차츰 변화되어짐을 느끼며, 자녀의 정서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쳤던 원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고, 자녀의 정서행동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느낀다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어머니 3: 전에는 00가 시키는 걸 안 하면 '이거 안해? 하나, 둘, 셋, 엄마가 셋 했다!' 하는 식으로 거의 애들한테 욕박질렀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무조건 하라고 안하고 '00가 하기 싫구나' 하면서 감정을 읽어주니까 전처럼 숫자를 세거나 하지 않아도 애가 전보다 말을 잘 듣는 것 같습니다(가정놀이 1세션 보고 중 자녀의 행동문제에 대한 보고하기에서 - 3회중)

어머니 22: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아이가 자발적이지가 못해요. 뭐든 해주길 바라고 해줄 때까지 멍기적 거리고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왜 그러는 건지도 알고 싶었고 다른 아이들은 어떤지도 좀 보고 알고 싶고 그래서 참여 한 거거든요. 지난번부터 계속 배운 반영적 경청해주고 감정 말해주고, 숙제 때문에 00이랑 해보면 00이가 다른 거 할 때랑은 다르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가정놀이 1세션 보고 중 자

녀의 행동문제에 대한 보고하기에서 - 3회중)

어머니 34 : 저는 아이가 너무 착하고 어른에게 배려할 줄 안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 그것도 너무 지나친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우리 아이 장점인 줄 알았는데, 너무 칭찬받으려고 하는구나 알게 되었어요. 일부러 제가 00가 빼졌을 때 '네가 칭찬받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속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줬더니 달래는 시간이 많이 줄었어요(가정놀이 1세션 보고 중 자녀의 행동문제에 대한 보고하기에서 - 3회중)

**㉟ 자녀들의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어머니들의 반응 변화**

**㉠ 어머니들의 자녀의 정서행동문제 수용 증가**

놀이치료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어머니들은 가정놀이세션의 횟수가 증가해가면서 점차 자녀와의 놀이에 익숙해졌고, 이 과정을 통해 자녀에 대한 이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가 어머니에게 나타내는 호감이 증가하면서 어머니들도 자녀에 대해 이전보다 더 긍정적인 수용이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어머니들의 변화들은 연구자와의 슈퍼비전을 통해 지지와 조언을 받으면서 더욱 증가되면서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에 대해 가져왔던 불만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머니들의 이러한 변화는 다시 아동들에게 보다 더 긍정적으로 정서행동문제 개선을 촉진시키는 촉발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어머니 6: 놀이하면서 참 기대 이상이에요. 평소 우리 00이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리드를 잘한다는 게 제일... 맨날 까불기만 해서 기대를 솔직히 많이 안했거든요. 매번 할 때마다 아이한테 기대를 하게 되네요(가정놀이 2세션 보고 중 자녀의 행동문제에 대한 보고하기에서 - 4회중)

어머니 27 : 저한테 요즘 놀아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매달리고 그래요. 때리고, 우습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너무 엄하면 00이가 더 눈치보고 밖에서도 그럴 까봐 많이 혼내기 보다는 이해해주는 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 말도 많이 시키고 저 올 때까지 기다려서 인사하고 그러네요(가정놀이 3세션 보고 중 자녀의 행동문제에 대한 보고하기에서 - 5회중)

**㉡ 자녀의 정서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개선**

놀이치료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의 정서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이해를 넓힌 어머니들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정서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제거가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개선에 우선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

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어머니 18: 제가 볼 때 00가 자신감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하든 이런 이야기를 집에서도 그렇고 친구들이랑 있을 때도 잘 안 해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놀이하면서 보니까 제가 잘못 알았던 것도 있구나 생각했어요. 리드도 잘하고 같이 놀이하면서 아이에 대해 몰랐던 것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는 것 같네요(가정놀이 3세선 보고 중 자녀의 행동문제에 대한 보고하기에서 - 5회중)

어머니 26: 00이가 알아서 잘 하는 게 없어서 저는 평소에는 잘 해주다가 안 된다 싶은 거에는 엄청 엄하게 하거든요. 고집이 세다 보니까 그렇게 다 오나 오나 해주면 안 되겠다 싶어서 혼낼 때는 무섭게 혼을 내거든요. 그런데 이걸 해서 그런가 요즘 좀 짜증을 내고 그런 게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해라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했지 뭐' 그랬구나, '저랬구나, 속상하지' 이런 이야기는 안 해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도 아이의 마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하니까 00이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가정놀이 3세선 보고 중 자녀의 행동문제에 대한 보고하기에서 - 5회중)

### ③ 자녀의 정서행동문제 개선

놀이치료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어머니들은 프로그램 종반에 이루어진 자녀의 정서문제행동에 대한 보고에서 자녀들의 정서행동문제가 프로그램 진행 초기보다 개선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변화가 어머니들이 프로그램에 참가해 배웠던 이론과 가정놀이세션을 거듭해가며 자녀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병행된 지원적인 슈퍼비전을 통해 자녀에 대한 이해가 증가하였고, 자녀의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변화도 자녀의 정서행동문제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머니 13: 00이는 문제가 진짜 많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좌절도 잘하고 제가 보기엔 고집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크게 확 바뀌었다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보다는 아이가 좋아졌다는 게 느껴져요. 이걸 하면서 아이가 변했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이걸 하지 않았으면 00이가 자기 스스로도 잘하고 규칙도 잘 만들고 뭐 그런 아이라는 것을 몰랐거나 더 늦게 알았거나 했을 거예요. 매일 정말 걱정되는 어린아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은 안심이 되요(가정놀이 6세선 보고 중 자녀의 행동문제에 대한 보고하기에서 - 8회중)

어머니 29 : 00가오 밖에서는 친구들한테 양보도 잘하고 그러는데 집에서는 절대 양보가 없어요. 절대 없는 게 밥 먹는 것도 이기고 싶어 하고 하다못해 식구끼리 나갔다 들어오면 누가 먼저 가서 엘리베이터 누르는지 그것도 경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하면서 아이가 이기

고 싶어 하고 칭찬받고 싶어서 그런다는 것을 알고 칭찬을 좀 자주해주거든요. 일부러 칭찬거리를 좀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조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먼저 누르고 싶어 하는 거 알고 있다 이러면서요. 아이 마음을 미리 알아주니까 아이가 여유로워 지는 것 같아요(가정놀이 5세선 보고 중 자녀의 행동문제에 대한 보고하기에서 - 7회중)

어머니 37: 00랑 이거 하고 나서부터는 자발적으로 하는 게 많아졌어요. 저도 많이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넘어가주고 하니까 00도 저도 봐준다는 것을 아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봐준다고 계속 안 씻고 버틴다거나 하지 않고 어느 정도 되면 알아서 씻는다거나 그러네요(가정놀이 6세선 보고 중 자녀의 행동문제에 대한 보고하기에서 - 8회중)

## IV. 결론

본 연구는 놀이치료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 후 어머니들의 자녀에 대한 공감능력이 증진되었는가와 자녀의 정서행동문제가 개선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머니들과 자녀들의 변화들을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놀이치료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참여가 어머니들의 공감능력을 증진시켰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공감능력의 변화를 프로그램 참가 전·후를 MEACL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된 후 비교해 본 결과 실험집단의 어머니들의 공감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놀이치료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참여가 어머니들의 자녀에 대한 수용적 의사소통의 허용, 아동의 자기안내 허용, 관여 등의 공감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프로그램에 참가해 학습한 이론과 가정놀이세션을 거듭해가며 이루어진 슈퍼비전을 통해 수용적 의사소통, 아동의 자기안내 허용, 개입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고, 이를 실천하면서 어머니의 공감능력이 향상되어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증가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놀이치료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들의 공감능력의 변화과정을 탐색해 본 결과, 프로그램이 진행됨에 따라 참가한 어머니들의 공감능력이 향상되어 가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다. 놀이치료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과정에서의 어머니들의 공감능력의 변화과정을 가정놀이세션에서 경험한 어머니들의 보고 사례들을 통해 살펴본 결과, 가정놀이세션 초기에는

배웠던 이론을 실천하는 데 주저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놀이세션이 거듭되면서 자녀와의 놀이경험이 증가하고 집단모임을 통해 더 많은 감정을 나누고 연구자와의 슈퍼비전을 통해 지지와 조언을 받으면서 자녀와의 공감능력이 더욱 확장되고 익숙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프로그램 초기 아동과의 놀이에서 배웠던 이론을 실제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들에게 지지적 슈퍼비전은 매우 중요한 지원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녀의 긍정적인 반응이 어머니에게 용기를 주어 시도하는 행동이 더 나타나게 하는 지원적 요인이었다.

셋째, 어머니의 놀이치료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는 아동들의 정서행동문제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K-CBCL검사를 실시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프로그램 참여 전·후의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의 변화를 비교해본 결과 실험집단의 자녀들의 위축, 신체증상, 우울, 불안, 사고의 문제, 공격성, 정서불안정, 내재화, 외현화, 충 문제행동 등 정서문제행동이 의미 있게 감소했다. 이를 통해 놀이치료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참여가 아동들의 정서행동문제를 개선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어머니가 놀이치료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지각한 자녀의 정서행동문제의 변화과정을 탐색해 본 결과에서도 역시 프로그램 초기보다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점차 아동의 정서행동문제가 개선되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또한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개선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부모가 그 동안의 잘못된 양육태도에 대해 느끼며, 자녀의 정서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었기 때문이었다. 변화과정을 탐색하면서 아동의 정서행동문제가 개선된 것에 놀이치료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부모가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고, 수용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자녀들을 더 많이 이해하고 수용하는 행동이 증가한 것과 아동의 문제를 부모의 양육태도 개선과 아동을 둘러싼 환경의 영향을 고려해 개선하고자 하는 인식의 전환이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임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된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사전·사후 검사를 포함해 10주간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본인의 참여의지가 필요하여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에 있어 희망자를 대상으로 제한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여 이후 보다 다양한 집단과 방법을 통한 추후연구가 실시될 필요가 있겠다.

둘째,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효과가 지속되는지에 대한

추적 검증이 필요하지만, 시간적 제한으로 인해 아직 후속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추후 계속 연구를 통해서 프로그램 효과의 지속성 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주제어** : 놀이치료, 부모교육, 변화과정

## 참 고 문 헌

- 김기현 (2000). 맞벌이 부부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관련변인 탐색.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백지은 (2007). 분리불안장애 아동의 특성과 부모-자녀 놀이치료프로그램의 효과.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지영 (2007). 아버지-어머니의 공감능력의 증진 및 유아기 자녀의 행동문제 개선을 위한 부모놀이치료 효과.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안진, 김연진 (1992). 부모교육. 서울: 동문사.
- 이근후, 박영숙, 문홍세 역 (1988). 아동기 감정양식. 서울: 하나의학사.
- 이정순 (2003).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부부관계. 부모성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4(3), 97-106.
- 이혜련, 오경자, 홍강의, 하은혜 (1998).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중앙적성연구원
- 장미경 (1998). 아동중심 놀이치료 기법을 이용한 부모-자녀 관계증진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미경, 권영주, 손금옥 (2008). 아버지의 부모놀이치료 프로그램 참여효과.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 3(1), 1-29.
- 홍숙기 역 (1990). 성격심리학. 서울: 박영사.
- Briggs-Gowan, M. J., Carter, A. S., Skuban, E. M., & Horwitz, S. M. (2001). The prevalence of social,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in a community sample of 1- and 2-year-old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0, 811-819.
- Bratton, S. C., & Landreth, G. L. (1995). Filial therapy with single parents: effects on parental acceptance, empathy, and stress. *International Journal of Play Therapy*, 4(1), 61-80.
- Coufal, d. & Brock, W. (1979). Parent-child relationship enhancement : A sills training approach" Stinnett, N., Chesser, B. and DeFrain, J.(Eds), *Buliding Family Strengths*, Lincoln : Univ. of Nebraska Press, pp. 235-252.
- Guerney, B. (1964). Filial therapy: description and rationale.

-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8(4), 303-310.
- Guernsey, B. (Ed.). (1969). *Psychotherapeutic agent: new roles for non-professionals, parents, and teachers*. New York: Holy, Reinhart, & Winston.
- Guernsey, B., Guernsey, L., Volgelsong, E. (1980). *Filial therapy: a video demonstration tape*[Video]. State College. PA: Institute for the Development of Emotional and Life Skills.
- Guernsey, B. (2000). Filial therapy into the 21st century. *International Journal of Play Therapy*, (9)2. 1-17.
- Jang, M-K. (2000). Effectiveness of filial therapy on parent and child behaviors. *International Journal of Play Therapy*, 9(2), pp.39-56.
- Johnson-Clark, K. A. (1996). The effect of filial therapy on child conduct behavior problems and the quality of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Doctoral dissertation, California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
- Lamb, M. E., Chuang, S. S., & Hwang, C. P. (2004). Internal reliability, temporal stability, and correlate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paternal involvement: A 15-year longitudinal study in Sweden. In R. D., Day & M. E. Lamb (Eds.), *Conceptualizing and measuring father involvement*(pp. 129-148).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Landreth, G. (1991). *Play therapy: the art of relationship*. Bristol, PA: Accelerate Development Press.
- Lincoln, Y., & Guba, E.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 Maccoby, E. E., & Martin, J. A. (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Parent-child interaction. In E. M. Hetherington(Ed.),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New York: Wiley.
- Maccoby, R. L., & Mullis, A. K. (1990). The effects of context on parent-child interactions.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1(3), 411-413.
- Robins, L. & Rutter, M. (Ed.). (1990). *Straight and devious pathways from childhood to adulthoo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gers, C. (1951). *Clinet-centered therapy*. Boston: Houghton Mifflin.
- Shaw, D. S., Keenan, K., & Vondra, J. I. (1994). Developmental precursors of externalizing behavior: Age 1 to 3. *Developmental Psychology*, 30, 355-364.
- Spradley, J. P. (1980). *Participant Observation*,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Stover, L. & Guernsey, B., Jr. & O'Connell, M. (1971). Measurements of acceptance, allowing self-direction, involvement and empathy in adult-child interaction. *Journal of Psychotherapy*, 77, 261-269.
- Tew, K. L. (1997). The efficacy of filial therapy with families with chronically ill childre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orth Texas.
- VanFleet, R. (1994). *Filial therapy: strengthening parent-child relationships through play*. Saraota, FL: Professional Resource Press.

(2009. 1. 13 접수; 2009. 4. 9 채택)